

품명	산화은	
HS code	2843.29	
관세율(%)	MFN(*25)	RCEP
	2.5	0



▶ 해당 품목의 對일 수출은 '23년 이후부터 급등 추세를 보이며, '25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 증감률이 14,630.8% 상승함

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(HS code 2843.29)

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21	3	7,489.5
2022	3	6.8
2023	12	293.1
2024	268	2,111.7
2025	39,457	14,630.8

선정 사유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- ▶ 산화은은 은이 산소와 결합하여 형성된 은의 산화물로, 전기화학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원료로 주로 활용됨
- ▶ 일본은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수요에 발맞춘 핵심 광물 확보의 움직임을 더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일본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동 품목을 4분기 수출 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일
수출동향

(HS 2843.29)

- ▶ 산화은(HS 2843.29호)의 對일 수출금액은 '25년 4분기 기준 약 14,630.8% 증가함
- ▶ '기타(HS 2843.29)'는 '산화은·할로겔하은·황하은' 등의 품목이 해당 호에 분류되며 '질산은'은 잔여 호에 분류함

한국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(HS code 2843.29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3년	2024년	2025년 4분기
1	2843.29	기타	12	268	39,457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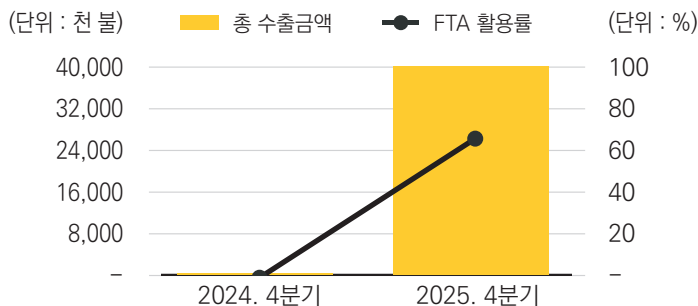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2843.2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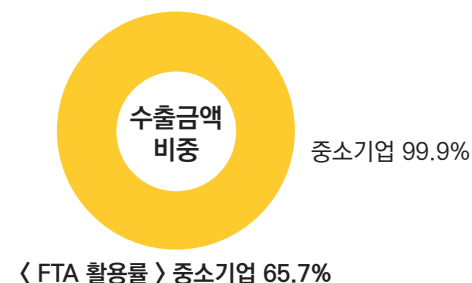
- ▶ HS 2843.29(산화은)의 對일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
 - '25년 4분기의 FTA 활용률은 65.7%로 나타남
 - 해당 품목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H or RVC 40임

- ▶ '25년 4분기 기준, HS 2843.29호의 수출금액 비중은 중소기업 99.9%임
 - 해당 품목의 '25년 4분기 기준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65.7%임

[HS 2843.29 對일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4.12, 2025.12)]



[HS 2843.29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5년 4분기)]



▶ '25년 12월 수입 금액 기준, 일본의 HS 2843.29호 5대 수입국은 이탈리아, 미국, 인도네시아, 프랑스, 중국 순으로 나타남

일본의 HS 2843.29 주요 5대 수입국별 수입금액 비중(2024~2025)

(단위 : %)

구분	이탈리아	미국	인도네시아	프랑스	중국	이외 국가
'25	43.3	40.6	8.2	3.7	3.6	0.5
'24	29.2	21.6	0.0	1.7	46.9	0.5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▶ 일본의 HS 2843.29에 대한 수입 상위 5개국과 우리나라의 FTA 특혜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

일본의 HS 2843.29 주요 5대 관세율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

국가명	MFN	협정세율		원산지결정기준
		협정명	특혜세율(%)	
이탈리아(EU)	2.5	일본-EU(EPA)	0	CTSH + 특정 공정 요건 충족 또는 MaxNOM(Non-Originating Materials) 50(EXW) 또는 RVC 55(FOB)
미국		일본-미국(TA)	-	-
인도네시아		RCEP	0	CTH or RVC 40
프랑스(EU)		일본-EU(EPA)	0	CTSH + 특정 공정 요건 충족 또는 MaxNOM(Non-Originating Materials) 50(EXW) 또는 RVC 55(FOB)
중국		RCEP	0	CTH or RVC 40
한국		RCEP	0	CTH or RVC 40

자료 : 일본 세관 EPA 포털

주1) 일-미 무역협정의 경우 특정 품목(농산물·공산품) 세번에 한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

주2) 일-EU 경제동반자협정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MaxNOM(Non-Originating Materials) 50(EXW)은 'EXW 가격 대비 비원산지재료의 값이 50% 이하여야 함'을 의미함

일본
수입 및 관세 현황

시사점

- ▶ 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, 일본 역시 동 품목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
- ▶ 특히,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줄이고 인도네시아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 수입 다변화 추진을 시사하고 있으며, 우리 기업 역시 RCEP 특혜 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음
- ▶ 동 품목에 대한 對일 수출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은 FTA 특혜관세 적용 위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, 투입 원재료의 HS 코드 및 BOM(Bill of Materials)을 철저히 관리하여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(CTH or RVC 40)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